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7:7-25(현대인의 성경)

1. 말씀

7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8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9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10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11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12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13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14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15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16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17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18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21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2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23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 아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은 7절에서 왜 “율법이 죄입니까?”라고 질문하며 시작을 했을까요?

→ _____

- 바울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까?(7절)

→ _____

- 바울의 “속사람”은 어떻고(22-23절) 자신에 대해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인가요?(24절)

→ _____

- 바울은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의 어떤 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적이 있나요?

→ _____

-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은 절망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겸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나요?

→ _____

- 바울은 절규합니다. “아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 _____

- 나의 삶에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v.19)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나요? 죄와 싸움,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희망과 해방을 주고 있나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과 ‘죄의 법’ 사이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그 싸움 속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나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7:7-25 (율법, 성도와 죄의 투쟁)

율법은 인간에게 도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율법이 인간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율법이 성도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율법 무용론으로 까지 갈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결국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경주하는 데는 속사람과 육에 깃든 죄와의 투쟁이 계속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원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것에 의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욕구가 사라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뇌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아 다시 죄의 포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외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6. 기도